

무상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김사업 법사, 미래학불교학회 학술회의서 주제 발표

불교는 전통적으로 '모든 현상을 무상(無常)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상은 불교적 세계관을 특징짓는 핵심 개념으로, 삼법인(三法印)에도 포함된다. 무상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고나면, '무상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김사업 오곡도명상수련원 지도법사는 6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학 불교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무상하니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통해 무상에 대한 대처방식을 불교사적으로 검토했

나' (厭離)가 되고, 그 결과 탐욕을 여의고 해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아함은 '무상에 대한 인식'이 무상한 현실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고, 해탈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뒤에 나타난 부파불교는 아함의 사상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부파불교의 대표적인 논자인 <구사론>은 무상이 고(苦)인 까닭을 삼수(三受: 좋거나, 싫거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와 삼고(三苦: 아픈 괴로움, 단절돼서 생기는 괴로움, 변화하게 되기에 생기는 괴로움)개념을 동원해 설명한다.

은 무여의열반인 셈이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성립했지만,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인식은 부파불교와 다르지 않다. 다만 무상을 대하는 방식은 구별된다. 김 법사는 "아함과 부파불교가 무상을 괴로움으로 보고 무상함 없는 열반을 추구하면서 무상 또한 조급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한 반면 "대승불교는 공(空)사상에 입각해 괴로움 또한 공한 것으로 보며, 괴로움의 원인을 무상에서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승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김 법사는 <중론> '제18장 관법품'을 근거로 "대승불교는 분별하고 집착하는 회론(戲論)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며 "무상을 괴로움으로 집착하면 그것이 바로 회론이며 괴로움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즉 "대승불교에서 무상은 멀리하거나 초극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진리로 간주되며, 무상과 하나 되지 못할 때 오히려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같이 무상을 대하는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상이한 태도는 열반의 개념차이로 이어진다. 즉 부파불교가 무여의열반을 지향한다면, 대승불교는 윤회와 열반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을 목표로 한다.

김 법사는 "무상하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타인에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말로 발표를 마치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news.com

경·론에 나타난 무상개념·대처방식 비교

부파 불교 무여의열반 대승 불교 무주처열반 지향

다. <아함경> <구사론> <중론> <유마경> 등의 경·론을 통해 초기·부파·대승불교가 바라보는 무상의 개념과 무상에 대처하는 방식을 비교하며 해답을 모색한 김 법사의 논문은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내 흥미를 끌었다.

김 법사는 아함으로부터 논지를 전개했다. 그에 따르면 아함은 '탐욕의 대상이 된 육신과 일상의 모든 경험은 무상하며,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며, 그래서 나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님을 그대로 직시하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직시하다보면 육신과 일상의 경험이 '역경도 싫어 떠

이에 따르면 고통(苦) 자체의 괴로운 느낌(苦受)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느낌(樂受) 또한 언젠가 단절(壞苦)되거나 변화기(行苦) 마련이라는 점에서 괴로움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 행고(行苦)다.

이처럼 무상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은 무무의 지혜로 정신적 번뇌가 끊어지고 육신조차 없어질 때 비로소 극복된다고 <구사론>은 설명한다. 이것이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인데, 아함의 '열반(厭離)'과 심화된 개념이다. 즉 '무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사론>의 답

계단 단석의 연화문과 격자 문양 등의 조각수법은 장식성과 섬세함이 우수하며 신장상의 조각 또한 갑옷과 신체의 세부 표현에 있어 매우 세련되고 풍부한 양감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1613년의 대구 용연사 석조계단과 친연성을 지니고 있으나 조각수법은 훨씬 뛰어나 한국 불사리 석조 계단의 계보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라고 덧붙였다.

박익순 기자



한국전쟁 중 소실된 순천 송광사.

한국전쟁시 호남 소실 사찰 뺨치산 토벌위반 방화 대부분

전남·북 및 광주 지역 사찰이 한국전쟁 당시 입은 피해의 대부분은 뺨치산을 토벌하기 위한 한국군경의 고의적인 방화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제3권 전남편'과 '제4권 전북편'에 따르면 전남지역 피해사찰 42개소 가운데 38개(90.5%)가, 전북지역 피해사찰 40개소 가운데 27개소(67.5%)가 한국군경에 의해 소실됐으며, 주로 뺨치산이 밀집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컸던 곳은 전남·광주지역의 경우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과 백양사 주변, 그리고 전북지역의 경우 뺨치산 거점지였던 회문산·지리산이 있는 순창·임실·남원과 운장산·덕유산이 가까운 완주군 등이다.

이런 전남·북 지역의 사찰피해현황을 조사·연구한 박진목 목포대 연구교수(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는 월간지인 '한국전쟁과 불교'를 통해 "한국군경에 의해 훼손된 불교문화재를 복원하는데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는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문화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쟁기 불교문화재 조사에 대한 보고서로, 조계종 총무원은 2002년 강원도, 2003년 제주도, 2004년 전남·북도와 광주지역을 조사했지만 금년에는 예산문제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6>

무위와 나노 과학

<금강경>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에는 '일체현성 개이무위법 이유 차별(一體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이라는 말이 나온다. '깨달음 이는 무위법에 근거해서 차별을 이룬다'는 뜻으로 상(相)에 머물지 않는 무위의 경지를 표현한다. 노장사상 또한 무위의 자세를 강조하며, 이상적인 태도로 꼽는다. 그런데 이러한 무위의 세계는 절단과학기술인 나노기술에도 작용하고 있으니 흥미롭기 그지없다.

나노과학은 나노 크기의 소재를 다루는 과학이다. 1mm를 1000개로 쪼개면 길이가 1마이크론이고 이를 다시 1000개로 쪼개면 길이가 1나노미터이니 나노의 세계가 얼마나 극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 2000년대가 마이크로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나노의 시대

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공학기술과 더불어 정교한 반도체 조작성을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훌륭히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카메라 등에 들어있는 메모리칩에서 한개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60나노미터 정도이므로, 반도체 기술 또한 나노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나노 크기의 트랜지스터는 공학기술에 의해서 정확히 조작성 결과물이다.

이에 비해서 세포핵과 같은 나노 크기의 물질은 하나 같이 자연히 만들어 진 것이다. 식물이 매 순간 행하는 탄소동화작용 역시 햇빛과 탄산가스를 받아서 녹말 등을 만들어 내는 나노의 세계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나

과학계 "생각은 나노세계의 단백질 작용" 나노미터 알면 생명현상까지 조작 가능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나노의 세계는 우리 몸속에도 있다. 세포에 들어있는 세포핵의 크기는 수십 나노이고 우리 자신과 자손의 형태 등을 결정짓는 DNA의 크기가 몇 나노에 불과하다. 또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 크기도 나노미터 단위가기 때문에, 나노미터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으면 생명 현상까지도 조작될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나노 과학과 달리 마이크로 시대를 처음 열었던 반도체 기술은 인위적인 것이다. 광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도체 소자나 회로를 렌즈로 축소해서 반도체에 전자함으로써,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반도체 칩에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기술이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

로 과학자들은 적당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자연이 하는 바에 따라서 나노 크기의 입자나 튜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를 SA(자기조립 self assembly) 기술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무위의 기술인 셈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번뇌하는 것 역시 나노의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작용으로 현대 뇌 과학은 이해하고 있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세라토닌을 투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역시 행복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유 없이 번뇌가 생길 때, 가만히 무위의 세계를 느껴보도록 하자. 무한 겁에서 생겨난 DNA의 결과물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도갑사 5층 석탑·안심사 계단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방유형문화재였던 영암 도갑사의 5층석탑과 원주 안심사계단을 각각 보물 제1433·1434호로 승격·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갑사5층석탑은 하층기단을 잃은 채 단층 기단 위에 탑신부와 노반석만으로 조성돼 있었으나 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의 도갑사 경내발굴조사에서 하층 기단 부를 발견, 2002년 2중기단의 5층석탑으로 복원됐다.

문화재청은 "전체적으로 균제된 체감과 안정된 조형미가 돋보이는 고려초기 석탑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보물 제1434호로 지정된 원주 안심사 계단.

안심사계단은 1759년 이전에 조성된 부처님 치아사리와 의습을 보관한 불사리탑으로, 중앙의 석종형 부도(높이 176cm)와 신장상 4위(높이 110~133cm), 그리고 기단의 석조 조형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심계단에 대해 문화재청은 "단층



보물 제1433호 지정된 영암 도갑사 5층석탑.

계단 단석의 연화문과 격자 문양 등의 조각수법은 장식성과 섬세함이 우수하며 신장상의 조각 또한 갑옷과 신체의 세부 표현에 있어 매우 세련되고 풍부한 양감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1613년의 대구 용연사 석조계단과 친연성을 지니고 있으나 조각수법은 훨씬 뛰어나 한국 불사리 석조 계단의 계보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라고 덧붙였다.

박익순 기자

중 불교계 선교융합 주제 세미나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법문사에서 제6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중국 불교계의 선교 융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차차서 동국대 강사의 '육조단경에 나타난 법화사상'과 화랑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의 '운서 주공의 선정결수관(禪淨兼修觀)'이 발표된다. 논평은 최홍순 동국대 강사, 변희욱 서울대 강사 등이 맡게 된다. (02)733-5311

수신통증오기피 禪獻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禪獻

제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에서는 연구논문들 통해 오기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통증오기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만을 생산합니다. * 산성환경이 함유되어 있다는 오기피 제형은 성분수비나 수신통증오기피와 하등의 차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통증오기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매가 사별호 교수 직접 제작된 분장인원을 드립니다.

수신통증오기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움직이는 禪의 승결 템플스테이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 지평'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보도록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확실히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한 일반인 템플스테이는 년 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 제: 하계 - 7월 ~ 8월 (2달간)** ▶ **모집 인원: 수시모집 (1주, 2주, 한달)** ▶ **대상: 초등학교이상 개인 및 단체**

* **동참금은 청소년-1일 2만, 한달 60만원, 성인-1일 3만,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신 후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골굴사)

수련내용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오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판소리, 활쏘기,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정형사지, 동해 문무대영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지경문과 부모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 회화를 원어민(외국인 행사)이 지도합니다. (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지도진: 스님·사범 등 10명, 판소리강사 1명, 다도강사 2명, 영어강사 1명
* 준비물: 개인 세면도구·필기도구·우산·운동화·운동복 등
* 접수 및 문의: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수련(학생)
6시	조경,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이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올력 (도량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 공양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철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야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초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선무도 대학